## 광주시교육청학비노 농성장 '전기차단'…폭염에 무방비

#### 광주지부 "자체 발전기 고장으로 선풍기도 못 써" 시교육청 "협의없이 공공기관 재산 사용해 차단"

광주시교육청이 폭염 속 농성장 내 전기를 차단하면서 농성의 주체인 전 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 부는 14일 "폭염 농성장에 전기까지 차단하는 비인간적인 광주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이어온 단체교섭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 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 다. 이 마저도 여의치 않자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36일째 천막농성을 이어

광주지부는 "자체 발전기를 사용,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 폭염을 견디고 있는데 전날 발전기 고장으로 전기사 용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지부는 "이 때문에 농성장 앞 시교육청 본관 현관의 전기를 사용하 려 했지만, 시교육청은 이 마저도 사 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주장했

광주지부는 "노동존중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인권 문제마저 외면하는 시 교육청의 전기차단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상 황은 시교육청이 자초한 것임을 밝힌 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부는 현재 다른 발전기를 대 여, 농성장에서 임시 사용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행대로 현 장 소가 아닌 청사 내 다른 장소에 천막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 원칙적으로는 청사 내 천막설치 는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 속 공공 기관의 재산을 사전 협의도 없이 사용 해 차단 조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지역에는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폭염경보가 발효중이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시교육청 본관 건물 앞에 설치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천막농성 장.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14일 오후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노조원들



코로나19 예방 위한 방역작업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 "취지 벗어난 광주 중앙1공원 특례사업. 엄정 심의해야"

#### 오늘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 앞두고 4개 시민단체 성명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 레사업과 관련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에 상정될 사업계획 조정안에 대해 시 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며, 엄정한 심의 를 촉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등 4 개 시민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중 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근본 목적과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아파트 건설 사 업이 중심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그동안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해 고분양가관리지역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후분양제를 철회

하고 용적률과 비공원시설 면적 증가 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 다"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시는 사 업자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업 계획조정안을 오는 15일 광주시 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주 객이 뒤바뀐 사업이 됐다. 이럴 때일 수록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 업자와 건설사간 이권 다툼에 원칙 없 이 대응하다 결국 사업자의 손을 들어 준 꼴이 되고 말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후분양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회피하려는 꼼수이며, 주 택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취지 에 어긋난 것이다"며 "후분양제에 따 라 용적률과 비공원시설 면적이 증가 하기 때문에 사업자 이익 증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시 도시계획위는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해 사업 당초 취지와 광 주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 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에 대해선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관련 최초 제안서, 최종 사업제 안서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슬비기자

#### 광주소방, 상반기 '코로나 이송' 9000건 육박

#### 확진자 2157명·의심환자 3537명·예방접종 환자 401명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의 올 상반기 코로나19 이송사례가 9000건에 육박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올해 상반기 지역 소방활동 통계를 분석 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이송건수는 8829건에 달했다. 월평균 1470여 건, 하루 평균 50건 꼴이다.

확진자 2157명, 고열과 기침 등 의

심환자 3537명, 학교 내 유증상자와 해외입국자 이송 2734명, 예방접종 환 자 401명 등이다.

화재건수는 14.8% 감소한 반면 구 조·구급·생활안전활동 건수는 각각 8.0%, 4.7%, 25.0%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화재 장소는 음식점, 산업시설 등 비주거 장소가 161건(41.3%)으로 가 장 많았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205건(52.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구조출동은 2729건으로, 지난해보 다 8.0% 증가했다. 구급은 3만2851건, 하루 평균 181건 출동했다. 이송 인원 은 2만2576명으로, 지난해보다 출동 은 5.3%, 이송 인원은 4.7% 증가했다.

생활안전출동은 4800건으로, 하루 평균 27건의 생활밀착형 안전활동을 펼쳤고 이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수치다. 서선옥기자

### 부적합 농수산물 1640kg 폐기

광주 보건환경研, 상추 등 2470건 잔류농약 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결과 농약잔류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44건 1640kg을 압류·폐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잔류농약 검사 하는 연구원들. (사진=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반 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농약 잔류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44

건 1640kg을 압류·폐기했다. 이번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서 부농수산물검사소와 각화농산물검

사소에서 서부·각화도매시장과 대 형 마트 등의 유통 농산물 2470건 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여부를 확인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참나물, 쑥갓, 취나물 등 19개 품목 44건이 부적합 판정 을 받았다. 기준치를 초과한 주요 농약성분은 플루오피람과 프로사 이미돈, 페니트로티온 등 살균제와 살충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자는 식품 위생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 1개월 간 출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잔류농약검사 대상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50여 건 이상 늘 어났고, 부적합 건수도 11건(부적합 률 0.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각화농산물검사소가 개소한 이후 주·야간 상시 검사 체계를 갖추면서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돼 관내 농산 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신문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062)943-0135~6 Fax: 062)943-0134 담당자: 010-2656-4747(장상문 전무)